



▣ 서울제약,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CP 계약 체결 후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등 후속 프로그램 진행

서울제약(대표 황우성)은 3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 예방 및 투명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을 도입하기 위해 본 연합회와 CP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CP를 도입하게 된 서울제약은 빠른 시일 내에 이사회를 통해 자율준수 관리자를 임명하고,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 편람 제작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CP를 도입하면 임직원들은 계약 체결이나 판촉활동 전에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된 자율준수편람을 이용하거나 CP 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울제약 관계자는 "이번 CP 도입으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현업 차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공정거래 이행상황 점검으로 위법행위 사전 방지와 사업 파트너와의 상생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SK커뮤니케이션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체계화된 자율준수 프로그램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 실천

SK커뮤니케이션즈(대표 박상준)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 예방 및 투명경영활동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한다고 3월 3일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주 이사회를 통해 자율준수 관리자(Compliance Officer)를 임명했으며, 3월 중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 편람을 제작하고 공정거래와 관련한 임직원 교육도 실시한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시로 공정거래법에 대한 현업차원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경쟁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된 오영규 이사는 "지속적인 임직원 교육과 공정거래 이행상황 점검으로 위법행위 사전방지, 파트너와의 상생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회원사 소식

▣ 포스코, 출자사 대상 'CP 도입 설명회' 개최

4개 출자사 대상으로...포스코특수강, CP 도입과정 경험과 운영 노하우 소개

포스코(회장 이구택)는 지난 2월 20일 포스코기업집단차원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200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예정인 포스코파워, 포스에이씨, 포스메이트, 포스틸 등 4개 출자사를 대상으로 'CP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포스코 공정거래지원팀 리더가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과 함께 CP 도입을 통한 법위반 예방효과 및 운영상의 필수요소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CP를 도입·운영 중인 포스코 특수강 CP 관계자는 CP 도입 과정에서의 경험과 운영상의 노하우 등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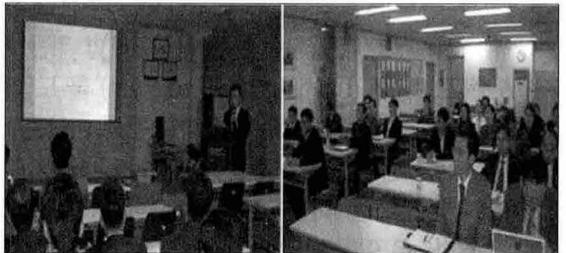
한편, 참여 회사별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다짐의 시간과 함께 평소 공정거래와 관련해 갖고 있던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를 통해 참석한 4개 출자사가 공정거래 준수 및 CP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CP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 풀무원, '자율준수협의회' 개최

올해 1분기 자율준수협의회...공정거래법 교육도 진행

로하스 선도기업 풀무원(대표 남승우)은 지난 21일 본사 교육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을 통해 공정경영과 투명경영을 지향하기 위한 '2008년 1분기 자율준수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율준수협의회에서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메시지, CP 액션 플랜(Action Plan)' 통해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참석자들 모두 경쟁규범을 스스로 지켜나가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회의가 끝난 후에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및 리더, 그리고 취약부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이 실시됐다.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 위주로 진행된 공정거래법 교육을 통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의 중요성과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을 제고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풀무원 관계자는 말했다.

▣ 하이닉스, ‘공정거래법 부문별 특강’ 실시

반독점법 중 구매·외주부문 특강 실시...80% 이상의 높은 참석률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김종갑)는 지난 1월 22일 경기도 이천 경영지원본부 홍보관에서 공정거래(반독점법) 부문별 특강(구매·외주 부문)을 실시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영업·기업부문 특강에 이어 4회째 실시된 이번 특강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김길태 단장을 강사로 초빙해 구매실, 외주기획팀, 자재지원팀 및 노경팀 임직원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도’를 주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자율준수관리자인 김시우 전무와 구매실 김민철 전무를 비롯해 구매·외주 업무 담당 직원 140여 명 중 110여 명이 특강에 참석해 80% 이상의 참석율을 보였다.

강의를 맡은 김길태 단장은 회사의 구매 및 외주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특히 하도급법 관련 이슈에 대해 평소 법과 친숙하지 않은 임직원들에게 쉬운 예를 들어 알기 쉽도록 설명했다. 김 단장은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임직원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 주기도 했다. 한편 하이닉스 자율준수사무국은 이번 특강을 촬영한 동영상(Video Clip)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등록해, 교육에 참가하지 못한 임직원들을 교육자료로 활용했다.



▣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 납품단가 20% 인상

“납품단가 인상으로 차 값 오르는 일 없게 할 것”

현대자동차(회장 정몽구)가 주물 납품 1차 협력업체들의 납품단가를 20% 인상키로 했다.

최근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납품업체들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대기업이 중소 부품협력업체의 납품가 현실화 요구를 수용해 납품가 인상에 본격 나선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은 3월 13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현대차는 지난 해 2차례에 걸쳐 1차 협력업체에 대한 납품가격을 인상했다”며 “올해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감안해 납품가격을 평균 20% 인상해 협력업체들에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이 같은 인상분을 3월중 협력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2월 1일자 납품물량부터 소급적용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또 주물 이외의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제조원가 상승 요인을 검토해 납품가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차 협력업체의 납품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2·3차 협력업체에 그 효과가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 인상분이 2·3차 협력업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동진 부회장은 “납품단가가 인상됐다고 해서 완성차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힘들다”며 “원가절감 노력을 배가해 차 값이 오르는 일은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